

# 옛 전남도청·광주읍성 유허·서석초 가치 ‘한 눈에’

## 광주 국가유산 야행

동구 주최...올해로 10주년  
 ‘세 개의 시간’ 주제 24-25일  
 대취타 재현 개막 공연 시작  
 ‘8夜’ 구성 체험 프로그램 다채

지난 24일 해가 질 무렵부터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 일대의 시간은 거꾸로 흐르는 듯 했다. 광장에 어둠이 조금씩 내려앉으면서 한복이나 옛 교복 차림을 한 이들이 하나둘씩 늘어나서다. 오후 7시경부터 흥겨운 풍물 소리가 광장 안을 채웠고 조선시대에 광주읍성 성문을 여닫을 때마다 울려 퍼졌다는 ‘대취타(大吹打)’ 재현으로 개막 공연이 시작되면서 25일까지 ‘세 개의 시간’을 주제로 진행되는 광주 국가유산 야행 10주년의 막이 올랐다.

### ◇‘근대의 시간’ 옛 전남도청

메인 무대가 위치한 옛 전남도청 일대에는 근대 광주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즐비했다. ‘전시 건축가의 방’에선 옛 전남도청 회의실을 설계한 건축가 김순하에 대한 소개와 함께 나만의 설계도를 그려보는 체험으로 방문객들을 사로잡았다. 또 내가 꿈꾸는 100년 후의 광주는 어떤 모습인지 종이 모형(페이퍼토이)으로 만들어보며 미래 도시를 기획하는 체험도 눈길을 끌었다.



올해로 10주년을 맞은 광주 국가유산 야행이 지난 24-25일 동구 일원에서 진행됐다. 24일 동구 5·18민주광장에 설치된 빛으로 표현된 옛 읍성길을 따라 취타대 행렬이 축제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김애리 기자

5·18민주화운동과 연계한 콘텐츠도 운영됐다. 광장 한 편에는 도청 회의실에 담긴 역사를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는 ‘건축 미로 탈출’이 위치했고, 5·18의 의미를 나누는 추모 음악회도 펼쳐졌다.

### ◇‘조선의 시간’ 광주읍성

하늘마당 인근의 광주읍성 유허는 조선시대의 일상과 문화를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 콘텐츠로 짜여졌다. 빛의 읍성에선 미디어아트 공연

을 통해 읍성 안과 밖에 거주했던 백성들의 일상과 풍경을 영상으로 재현했다. 체험극 사또의 하루는 고을의 수령이 힘써야 할 핵심 업무 7가지와 함께 왕이 있는 곳을 바라보며 예의를 표하는 의식 망궐례를 직접 해보며 조상들의 삶을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게 했다. 이외에도 떡메치기와 백성 의상 체험 등 남녀노소 모두 가볍게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도 다수였다.

### ◇‘미래의 시간’ 서석초교

광주 최초의 근대학교로 13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서석초등학교는 과거와 현재, 미래가 모두 교차했다. 근대 교복을 입고 서석초가 개교했을 당시 학생들의 생활을 느껴보는 옛날 교실 체험과 평소에는 접점이 제한됐던 체육관 개방, 전시를 통해 과거는 물론이고 앞으로 이곳에서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

수 있을지 상상해보는 시간 등이 제공됐다. 일대에선 야행을 즐기는 방문객들이 등불을 제작해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의 등 만들기’와 박 터뜨리기, 고무신 던지기, 팽이치기 등 전통 근대 놀이 한마당 ‘서석운동회’도 열려 참가자들 열띤 대결이 펼쳐지기도 했다. 부모님과 함께 온 김모(9)군은 “다른 초등학교에 들어와 본 게 처음인데, 오래돼 보이는 외관이 멋지게 느껴졌다”며 “조선시대 흔적이 남아있는 유허와 떡메치기 체험도 신기했고 재밌었다”고 만족감을 표했다. ◇3만4천명 방문...동구 ‘가치 확산’ 올해 국가유산야행은 8夜로 나누어 총 30개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이 중 유료 프로그램인 세 개의 밤(숙박 패키지)과 시간의 길(가이드 투어), 흑백미식(전통음식체험)의 경우 대부분 목표 인원을 모집한 것으로 파악됐다. 방문객은 3만4천명으로 잠정 집계됐는데, 이는 최근 3년 실적인 ▲2023년 2만6천730명 ▲2024년 2만2천376명 ▲2025년 3만488명을 포함 웃도는 수치다. 동구는 올해의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국가유산청 공모를 이어가며 방문객들에게 뜻깊은 시간을 선사할 계획이다. 주영주 문화예술체육과장은 “올해 야행은 여느 때보다 광주 국가유산의 가치를 살리고 확산하는 데 집중했다”며 “광주의 정체성을 안고 있는 국가유산의 가치가 시민들에게 가깝게 다가가고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재영 기자 <광주매일 TV kjdaily.com (영상뉴스)>

##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사망사고 80대 ‘집유’

### 향소심 재판부, 1심 판결 유지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하다 사망사고를 낸 80대가 향소심에서도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부(김일수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1심에서 금고 1년6개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A(80대)씨의 항소를 최근 기각했다. A씨는 2024년 7월25일 광주 서구 쌍촌동 한 사거리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80대·여)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B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사고로부터 약 2달 만에 뇌출혈 및 뇌부종에 의한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했다. 사고 당시 B씨는 보행자 신호에 횡단

했던 터라 1심 재판부는 그에겐 별다른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한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양형 부당을 주장했지만, 향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도 없고,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안재영 기자

### 연인 ‘불법 촬영’ 현직 검사 검찰행

고제했던 연인의 신체를 불법 촬영했다는 의혹을 받은 현직 검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26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를 받은 A 검사를 최근 불구속 송치했다. A 검사는 헤어진 여자친구와 만났던 시기에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A 검사는 전남 소재 지청에서 근무했고 현재는 다른 지역에서 재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선 경찰서에 접수된 고소 사건을 넘겨받은 전남경찰은 A 검사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고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조사 과정에서 A 검사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수사 결과 범죄가 입증된다고 보며 송치 결정을 내렸다. /안재영 기자

## 경찰이 주행 車 화재 포착...큰 피해 막아

### 방림지구대 조영우 경감·손준호 경사

순찰 중이던 경찰이 도로 위 스포츠유틸리티 차량(SUV)에 난 불을 포착, 초전에 나서 큰 피해 없이 진압됐다. 26일 광주 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57분께 남구 양림동 한 도로에서 주행 중이던 SUV에서 불이 났다. 당시 근처에서 순찰을 하고 있었던 방림지구대 소속 조영우 경감과 손준호 경사는 불을 보고선 즉시 달려갔고 순찰차에 비치된 소화기로 초기 진화에 나섰다. 화재는 공동 대응 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오후 2시4분께 완결됐다. SUV 안에는 50대 운전자 1명이 있었지만, 화재 발생 후 대피해 별다른 피해는 입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손준호 경사는 “빠르게 불을 꺼 큰 위험을 막

아야 한다는 생각 뿐이었다”며 “연기가 심해져 즉시 완전이 어려웠으나 소방에서 현장에 신속히 도착해 안전하게 조치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다. /서형우 기자 <5·18 허위 사실 유포’ 전한길 고발된다> 최근 5·18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전직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에 대해 5·18기념재단과 광주시가 법적 대응하기로 결정했다. 26일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광주시와 함께 전한길씨를 5·18민주화운동에관한특별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 위한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이다. 법률 검토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가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연상 기자

## 60플라워

Flower

축화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동협 박배성 302-0316-649511

# 철거 전문가

광주·전남 전지역 가능

- ☑ 철거 경력 20년!
- ☑ 광주·전남 전 지역 출장 가능
- ☑ 상가, 주택, 간판, 내부 철거 등
- ☑ 당일 견적 OK / 소규모 철거도 가능
- ☑ 안전·정리+깔끔함까지 책임집니다.

폐업

현주 제로레벨

☎ 상담전화  
**010.9842.5570**